

투데이 칼럼

김정은 암살 위협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전략 미사일 기지를 시찰하면서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김 위원장은 발사 관련 시설 요소별 기능과 능력, 전략 미사일 정부일 근무(당직 근무) 상태 등 나라의 안전과 직결된 전략적 억제력의 가동 준비 태세를 점검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암살 가능성'을 의식해 최근 경호 수위를 높였다. 실제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총알받이가 될 경우 내부 동요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다.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한가운데로 뛰어들면서 김 위원장을 겨냥한 외부의 위협 수준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북한은 최근 김 위원장 신변 경호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통신 제밍(Jamming·통신 간섭·무선 방해) 차량, 드론 탐지 장비 등의 도입뿐 아니다. 김 위원장 시찰 현장에서 경호원들이 총기 방아쇠에 손가락을 넣고 경호하는 모습이 포착돼 주목받았다.

김 위원장 암살 가능성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 2017년 미국 정부가 김 위원장을 암

살하는 훈련을 극비 실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018년에는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암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1년 집권 이후 10년간 20여 차례의 암살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2020년엔 김 위원장이 20일 동안 외부 활동을 하지 않자 '신변 이상설'이 돌기도 했다.

집권 초인 2013년 고모부 장성택 등 반대 세력을 대거 숙청했지만 여전히 내부 체제가 불안하다는 평가를 받는 셈이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라디오에서 "제가 김정은을 만나 보면 늘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산다.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에는 역대급 수해가 발생해 민심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탈북한 전 주 쿠바

북한대사관 참사는 김 위원장이 당 우선주의 등을 강조한 배경에 '쿠데타 우려'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여기에 러시아 파병까지 알려지며 내부 민심은 일제선에 다른 것으로 분석된다. 파병이 사실상 총알받이라고 한다면 당장 군 내부에서 정보가 확산돼 동요를 일으킬 수 있다.

북한 인구의 4분의1에 달하는 약 700만 명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돼 동요 확산도 예상보다 빠를 수 있다. 외부 위협 강도도 높아졌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면서 김 위원장은 전황을 뒤집기 위한 '요인 암살' 타깃이 될 수 있다. 지난 7월 하마스의 수장 이سمail 하니예가 이란에서 암살됐고 그 후임인 야히야 신타와 역시 팔레스타인에서 사살됐다.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도 타깃 공격에 사망했다. 우리 군의 대응도 강경하다. 쓰레기 폭전 살포 등이 이어지자 합동참모본부는 "우리의 전략적·군사적 목표는 북한 동포가 아니라 오직 김정은 한 명에게 모든 것이 맞춰져 있다"고 경고했다.

국가안보실장은 국방부 장관이던 지난 3월 '참수 작전' 수행 부대를 8년 만에 방문하기도 했다. 김정은 위원장 친위 부대인 이른바 '각두기 부대' 974부대는 최근 밀착 경호 수준을 더욱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일성·김정일 시대에 주로 쓰인 '수령결사옹위'라는 표현도 자주 등장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군 기념행사 등에서 직접 결사옹위를 강조했다. 최근에는 '주체' 연호 사용을 중단하고 해외에 파견된 인력들에 김일성·김정일 시대 등 선대의 문헌을 대신해서 김정은의 혁명 역사 등을 재차 강조했다. 선대 사제, 김정은 독자 우상화 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공개 자료를 보면 무장 수준과 인력 등 김정은 경호 수준이 확실히 달라졌다.

전반적인 대내외 상황을 고려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경호 격상이 당연한 일이다.

정복규
논설위원

사설

한국 야구 천만 시대

최근 한국 야구의 과제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천만 관중 시대'를 열었다고 열광한다. 그러나 우리의 목소리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프로야구 최초로 '천만 관중 시대'를 연 허구연 KBO 총재가 황금기 이후의 위기를 경고했다. 역대급 흥행이 신기루처럼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는 외연보단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시즌 프로야구는 한국 프로 스포츠 사상 최초의 천만 관중 시대를 열었다. SNS 콘텐츠 허용 및 활성화를 통한 2030 세대 관중의 폭발적 유입, 그리고 세계 최초 ABS 도입 등 혁신적 제도 또한 큰 효과를 봤다.

허구연 총재는 이런 점을 높이 평가받아 일구회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았지만,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했다. 실제로 우리 야구는 한편으로 보면 '외화내빈(外華內貧)'이다.

천만 관중에 도취하는 순간에 900만, 800만 관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특히 최근 도쿄 올림픽과 WBC 등 국제대회에서 부진했던 한국 야구의 국제 경쟁력도 우려된다.

실력이란 튼튼한 기반 없이 쌓아 올린 흥행은 한순간 무너질 수도 있다.

2008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이후 야구계는 발전하지 못했다. 그 사이 일본은 상당히 큰 충격을 받고 점진적인 발전을 했다.

반면 한국 야구는 발전 속도가 느리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소년 야구 등 저변 확대와 기반 시설 확충, 그리고 선진 지도자 교육이 절실하다. 세대교체와 철저한 준비로 2026년 WBC에서 중흥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4강에는 가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세속적인 말을 기억하기 바란다.

'팔복 작은 도서관' 어르신들의 활약

전주시 '팔복 작은 도서관' 어르신들의 활약이 새로운 노인문화를 만들고 있다. 팔복주민센터 지하에 있는 도서관은 문자 그대로 소규모 도서관이다. 그러나 이곳을 책을 보거나 대여해 가는 시민들이 전주시내 곳곳에서 찾아온다.

이런 배경에는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 전북취업센터 소속의 공익형 일자리가 한 몫을 크게 하고 있다. 이곳에 노인일자리로 출근하는 어르신은 모두 4명이다.

심보라, 김영자, 임경숙, 박순자 어르신 등으로 이들은 모두 70대와 80대 어르신들이다. 이들은 일주일에 세 번, 세 시간씩 출근한다.

이들에게 주어진 일은 당초 환경 정리와 도서 정리가 주 업무다. 그러나 이들은 도서관 이용자 안내도 적극 나서고 있다. 신간도서와 베스트셀러 등을 찾는 이용자들에게 친절히 소개하고 안내한다.

요즘에는 노벨 문학상 '한

강'의 소설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한 강' 소설은 전국적으로도 품절 사태가 심각했다. 자연히 <팔복 작은 도서관> 어르신들도 바빠졌다.

'한 강'의 소설은 '팔복 작은 도서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사람들이 밀려들었다.

'한 강'의 소설을 받아든 시민들은 모두 호뭇해했다. 어르신들도 이런 모습에 함께 보람을 느낀다.

어르신들은 도서관에서 김경숙 사서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동화책을 놓고 한 달에 한 번 씩 독서모임을 진행한다. 어린 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기도 한다. 이들은 도서관에서 취미 활동도 열심히 한다.

수부크림을 비롯 도자기 그리고 원목 핸드트레이 등을 만든다.

원목 핸드트레이는 양념 그릇으로 인기가 있다. 임경숙 어르신은 주민들과 함께 수제화 동아리 모임에도 참여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어린이 환자 격려하는 브라질 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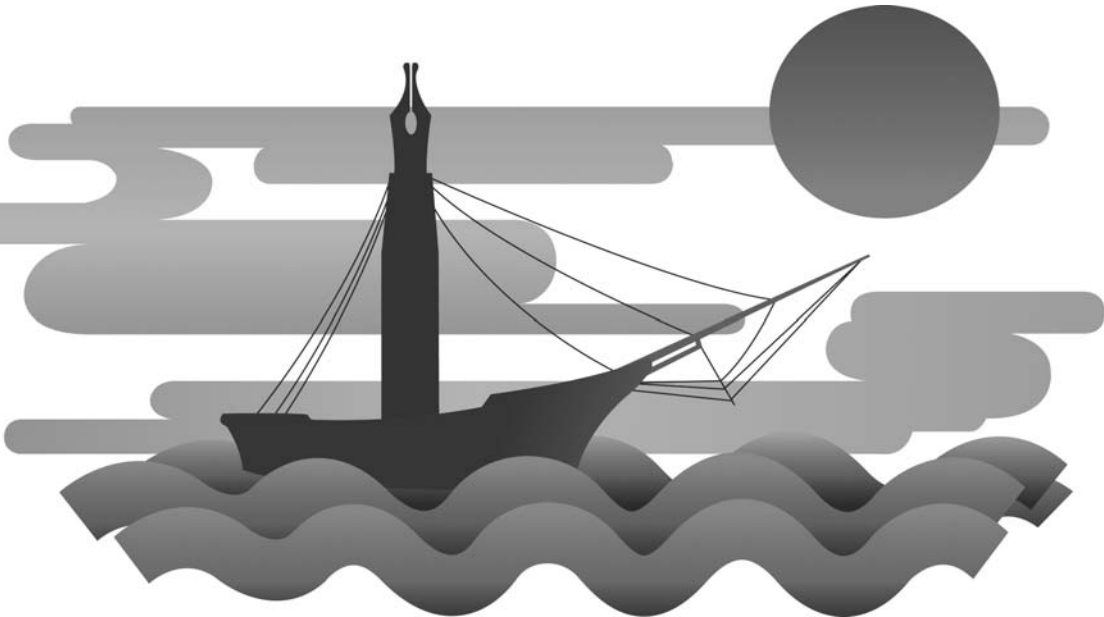


지난 19일(현지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시립 병원에서 산타클로스로 분장한 시청 직원이 어린이가 환자를 찾아가 격려하고 있다.

헬스케어 CEO 살해 용의자 루이지 옹호하는 사람들



지난 19일(현지시각) 미 펜실베이니아주 홀리데이스버그의 블레어 카운티 법원에서 루이지 맨지오니의 예비 심리 및 인도 재판이 열리는 동안 한 부부가 그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맨지오니는 지난 4일 유나이티드헬스케어의 브라이언 토포스 CEO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일부 계층에서는 의료보험 회사들에 대한 집단적 분노를 표출하며 맨지오니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